



본대로 느끼대로

1979년 10월 일본 도쿄 하루미 전시장에서 열렸던 제1회 IGAS에 인협에서는 20여명의 시찰단을 파견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이 자유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시찰 여행을 하려면 주무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외무부에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추천과정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인원이 20명을 넘어서도 안 되고 여권도 단수여권(1회용)이었다.

당시에는 외환사정이 좋지 않고 국내경제 불황이 작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특권(?)이나 일종의 사치로 치부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서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를 거뜬히 치러내는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지난 9월에 도쿄 빅사이트 홀에서 개최된 IGAS 2003에는 국내에서 인쇄관련인 약 1천명이 다녀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20

여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今昔之感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세계 유명인쇄기계 메이커나 전시회 출품회사들이 대한민국 인쇄인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쇄경영인들은 전시회에 참가하면 대체로 새로운 시설을 눈여겨 본다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게 마련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IGAS 2003은 4년전 전시회보다 활기가 떨어진 듯한 인상을 받았으며 전시공간 및 배치가 뒤셀도르프 드루파나 시카고 프린

트 전시회에 비해 불편하고 새로운 시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친환경적 흐름이 두드러졌으며 기계 성능의 고속, 다양화를 읽을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 선택이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지켜보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짚은 부분은 국내에서 현장실무자들이 대거 참관했다는 사실이다.

경영인 위주의 참관에서 실무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작은 출발로 큰 변화의 물줄기를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인쇄사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때 경영자 혼자서 고뇌에 찬 결론을 내리곤 하는데 현장 책임자들이 인쇄시설이나 기술흐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인쇄사 경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인쇄사에서 10명의 현장 실무자를 파견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공정별로 전시장을 누비면서 감각을 살리고 한 보따리씩 자료를 챙겨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인쇄문화산업의 밝은 미래를 읽었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선진인쇄 기술이나 인쇄산업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경영인이나 실무자를 가리지 않고 본대로 느끼대로 실천하는 길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고 또한 살 길이기도 하다.

〈오세익 · 편집주간〉

“ 해외 전시회가 경영인 위주 참관에서 실무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대부분의 인쇄사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때 경영자 혼자서 결론을 내리곤 하는데 현장 책임자들이 인쇄시설이나 기술흐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인쇄사 경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